



최후통첩 D-1... 제주용암수 갈등 해결되나

도, 31일까지 오리온과 협의 완료... 국내 시판 쟁점 결렬시 물 공급 중단...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 중"

제주 용암수 '국내 시판' 논란이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1일까지 오리온과 협의를 완료, 제주 용암수 국내 시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29일 밝혔다. 31일까지 협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더이상 오리온에 용암해수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용암해수(염지하수)로 만든 제주 용암수를 오리온이 국

내에 시판하면서 촉발됐다. 제주도는 오리온과 용수공급계약 자체를 맺지 않았을 뿐더러 제주삼다수와 생수시장에서 경쟁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했다. 반면 오리온은 예전부터 용암해수를 관리하는 제주테크노파크에 공급 계약을 신청한 상태라 공급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해외수출을 위해서도 국내 판매 실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선 상황이다.

논란이 불거진 뒤인 지난달 17일 오리온은 PPT형식으로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국내 시판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갈등은 더 심화됐다. 급기야 제주도는 용암해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후 제주도와 오리온은 용암해수 공급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막기 위해 실무진이 직접 만나 협의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암해수 공급 시기를 오는 31일까지로 못 박고, 오리온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

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돼 조만간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에서 용암해수 1일 약 1만t을 취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0~1000t 가량을 오리온에 공급하고 있다. 오리온이 용암해수사업에 뛰어들 것은 2016년 제주기업인 '제주 용암수' 지분을 인수한 뒤 약 12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서귀포 치유의숲과 지역의 상생 눈길

올해 농산물판매장 신축 비좁은 화장실 확충 나서

서귀포시 호근동에 위치한 치유의숲에 올해 주민소득사업과 연계 활용을 위한 농산물판매장이 들어선다. 또 방문객 증가에 따라 화장실이 비좁아 발생하는 민원 해소를 위해 전동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화장실도 새로 짓는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올해 8억원을 투입해 70㎡ 규모의 농산물 판매장과 150㎡의 외부 화장실 신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산물 판매장은 개장 당시 치유의숲이 위치한 호근마을과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완공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임산물 판매공간으로 활용돼 지역주민의 소득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야외화장실 신축은 현재 치유의숲 방문자센터 화장실이 비좁은데다 전통

휠체어 진입도 불가능해 단체탐방객과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따르면서 확장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산림휴양관리소는 농산물 판매장과 외부화장실 신축을 위한 실시시설 계약역을 이달 초 발주한 상태로, 용역을 마치고 4월쯤 착공해 8월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치유의숲은 2016년 6월 개장 후 산림체험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장 첫째 3만5000명에서 2019년 7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치유의숲에서만 맞볼 수 있는 '차롱밥상'은 작년 6800여개가 판매됐다. 차롱밥상은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사전에 예약을 받아 판매되는데, 호근마을 주민들이 대나무로 엮어 만든 '차롱'에 건강한 계절음식을 중심으로 담아 선보이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공익활동지원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소규모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2일까지 '공익활동지원(촉진)사업'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지원분야는 환경·교통·도민 인식 개선·복지·인권신장 등 10개 분야이다. 비영리단체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규모민간단체는 마을회나 시민사회단체, 자생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3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송은범기자



순학규 남고, 안철수 떠나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한 29일 국회에서 각각 순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안철수 전 대표는 탈당 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제주의 미래 D-76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성명·가나다 순>

<p>"중앙 올인 원 지사 사퇴" 제주시갑 문운택 예비후보</p> <p>더불어민주당 문운택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도·보수 통합 신당 합류 의사를 밝힌 원희룡 지사에 대해 "중앙정치에 올인하겠다는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정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개인의 정치적 입지만을 다지려는 행보에 대해 쓴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은지기자</p>	<p>"신종코로나 철저 대응" 제주시갑 박희수 예비후보</p> <p>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철저한 대응 태세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은 중국 우한지역을 통해 입도하는 중국관광객을 철저히 파악해 제주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은지기자</p>	<p>후원회 결성·회장 오용덕 제주시갑 구자현 예비후보</p> <p>자유한국당 구자현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후원회장은 제주남초등학교 총동창회장인 오용덕 치의학박사가 맡았다. 오용덕 후원회장은 "구 예비후보는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검사이면서 가난한 소시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오은지기자</p>	<p>"송재호 사과해야" 촉구 제주시갑 김영진 예비후보</p> <p>자유한국당 김영진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는 29일 성명을 내고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매일경제는 국가균형발전위가 '지난해 10월 기준 조직을 확대해 11명이었던 국민소통특별위원을 350여명으로 늘렸고, 40명 가까이 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된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은지기자</p>	<p>"신종코로나 검역 강화" 제주시갑 고병수 예비후보</p> <p>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제주시갑·사진)는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 예비후보는 "공항에서의 검역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보건행정당국을 향해 검역 강화를 당부했다. 오은지기자</p>	<p>"플라스틱 제로 특구" 제주시을 부승찬 예비후보</p> <p>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제주시을·사진)는 29일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플라스틱 제로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부 예비후보는 "제주 자연은 신이 준 선물인 만큼 더 이상 환경파괴를 방지해선 안된다"면서 "조금은 불편하지만 지구와 제주를 위한 방안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p>	<p>"김우남 경선의혹 밝혀라" 제주시을 김효 예비후보</p> <p>자유한국당 김효 예비후보(제주시을·사진)는 29일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 당시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이 김우남 전 의원에게 유도했던 경선포기 의혹에 대해 정당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 전 의원은 정당에 대한 의리보다는 그동안 도민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해 사실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p>
---	---	--	---	--	--	---

재단법인 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

2020년 제1학기 장학생 신청서류 접수 안내

접수기간 : 2020. 2. 3(월) 09:00 ~ 2. 21(금) 17:00

본회에서는 제40차(통산104차) 장학생 선발 안내를 하오니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대상(자격)

- 1) 출신 및 대학 :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원의 자녀로서 4년제 이상 정규대학 재학생 또는 제주거주도민의 자녀로서 제주도 이외에 소재한 4년제 이상 정규대학의 재학생.
- 2) 성적기준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또는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함. 다만,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경우 B학점 미만의 자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 가능함.
- 3) 취득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4) 제외대상 : 신입, 편입의 경우 당해학기의 재학생.

□ 구비서류

- 1) 본회 소정 양식의 지원서(명함판 사진 부착)와 추천서 각 1통
- 추천서는 총장 또는 학장 추천여야 하며 반드시 원본 "직인"날인이 있어야 함.
- 2)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재학 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1통
- 3) 접수기간 내에 발급한 성적 증명서 1통.
- 4) 총장 또는 학생처장, 학장이 발급한 2020년 1학기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서 1통
- 5) 학교 및 타 장학단체 장학금 수혜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0만원 이하 수혜자는 예외.
- 6) 등록기준지나 원적지가 제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 증명서 1통
- 7)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8) 보호자의 등록기준지나 원적이 제주가 아닌 경우 신청인 본인이 제주에서 초,중,고를 수학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9) 부·모 각각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기간: 2019.7.1~2019.12.31) 확인서 각 1통.

10)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각 1통.

11) 부모 이외의 자가 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 확인서 1통. (9~1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 접수방법 본회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인정)만 가능

□ 접수처 (재)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Tel.02-3662-2651) 07526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71양동)

□ 참고사항

- 1)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장학회 이사 및 선정위원은 장학 대상자를 추천할 수 없습니다.
- 3) 접수 마감 일시까지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본회 소정양식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 홈페이지(www.jejuinseoul.com)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5)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개별통보하며 지급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2020. 2.
재)서울제주도민회 장학회 이사장 백명윤